성공 직업인 생생 인터뷰

간암을 치료하는 의사, 한광협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언제이고,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과 대학을 목표로 했어요. 당시 전자와 건축이 인기였거든요. 건강 보험이 생기기 전이라 의료에 대해서는 접할 곳도 그리 많지 않았고, 당시에는 몸이 아프면 약국을 찾던 시절이라 의사라는 직업이 그리 각광받던 시절은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던 누나의 적극적인 권유로 의과 대학에 갈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의과 대학이 제게는 생소했어요.

진학 진로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 의과 대학과 이공계 중 어디로 갈지 물었더니 선생님께서 의과 대학은 사람을 다루고 이공계는 사물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말에 끌려 의과 대학에 가기로 결정했죠.

의과 대학에 가기 위해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저는 영어와 수학이 약했어요. 특히, 영어가 더 취약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의 대부분을 영어 수준을 올리는 데 주력했어요. '정통 종합 영어'라는 책으로 매일 4시간씩 공부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끌어올렸는데, 남들보다 특별히 잘한 건 아니고 남들 수준으로만 올렸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영어와 수학 위주로만 공부했어요.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의과 대학 과정은 배워야 할 과목도 많았고 시험도 자주 있어서 다른 일반 대학에 비해 힘들었어요. 학교 때도 힘들었는데 병원에서도 무척 바빴어요. 당시 건강 보험이 막 시작되던 시기라 병원 문턱이 낮아져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연스레 환자의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죠.

전공의 시절에는 환자들의 죽음을 경험하는 게 힘들었죠. 하지만 그런 만큼 사람을 살리는 보람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의사로서 겪었던 실수와 교훈이 있나요?

내과 전공의 초년 시절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모든 것을 잘 안다고 믿을 때였죠. 간경변증 합병증으로 식도 정맥류가 파열돼 혼수상태로 실려 온 40대 남자 환자의 가족에게 "회복이 어려워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 없으니 치료를 중단하자."라고 종용하여 퇴원시켰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 그 환자는 상태가 호전되어 재입원했고 이후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때 제 경솔함을 깨달았죠. 생명의 소중함과 나를 포함한 의사들의 예측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배웠어요. 회생 확률 못지않게 꺼져 가는 생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의사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직업이나 직업윤리가 있어야 하지만 의사는 병들고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료도 환자 중심이어야 하고, 학문적 연구도 환자 중심으로 해야 해요. 결국, 사람 중심인 거죠.♥